



세계 창조도시를 가다

<22> 유럽편 '도시와 거리카페'

- 1 네덜란드 라이덴의 거리카페. 수 백년된 고목을 중심으로 200여 개의 탁자가 배치돼 있다.
- 2 프랑스 리옹 손(Saone) 강에 준비하게 들어선 거리 카페. 점포마다 테이블과 의자의 디자인이 다르다.
- 3 영국 에딘버러의 거리카페. 남녀노소가 모여드는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한다.
- 4 프랑스 파리의 거리카페. 골목길 양쪽에 1층에 들어선 카페와 중세 건축물이 장관을 이룬다.

여유·감성 충전... 삭막한 도심의 '낭만 발전소'

한집 건너 카페... 갤러리 등 문화시설과 인접 젊은이들 모여 각국의 언어로 함께 춤·노래 이방인에도 먼저 손 내미는 열린 '사교의 場'

유럽 도시의 공통점은 거리카페다. 골목길부터 대로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의 공간만 허락된다면 탁자와 의자, 그곳에 머물며 수다를 떠는 사람들을 이내 발견할 수 있다. 업무나 관광을 위해 거리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카페는 약간의 비용을 부담하고 여유와 감성을 즐기는 장소이자, 삭막한 길에 '양념'과도 같은 공간이기 때문이다.

영국 글라스고 카페에서는 60대 노부부만 만날 수 있었다. 이들 부부는 낯선 동양인에게 글라스고의 특산물인 콩, 버섯 등으로 만든 음식을 권하며 인근 쇼핑센터와 날씨 등을 주제로 10여 분간 따뜻한 이야기를 건넸다. 이방인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는 개방적이고 친절했으며, 그들로 인해 글라스고라는 도시를 한층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물론이다.

이 카페는 글라스고의 시티투어버스가 지나가는 뷰캐넌거리(Buchanan Street)에 자리하고 있으며, 뷰캐넌 갤러리 등 문화시설, 쇼핑센터, 역 등과

인접해 있었다. 도심 곳곳에 산재해 있는 이들 시설과 상점 등을 도보로 둘러본 뒤 쉬어갈 수 있는 장소에 그 거리를 대표하는 카페들이 즐비한 셈이다.

네덜란드 라이덴의 카페는 수로, 풍차, 녹지 등을 배경으로 마치 그림처럼 자리하고 있다. 대학도시인만큼 대학생 등 젊은이들로 카페와 레스토랑은 오후 4시가 약간 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북적거렸다. 취재진은 노거수를 중심으로 100여 개의 탁자가 설치된 거리카페에 자리를 잡았다. 커피, 네덜란드산 맥주, 간단한 안주 등을 취급하고 있는 이 카페에는 빈 자리가 없었으며, 좁은 탁자와 탁자 사이를 여중원들이 전대를 허리에 찬 채 배달과 계산을 동시에 해결하고 있었다.

취재진은 좋은 날씨,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축물, 거리를 지나는 사람 등을 구경하며 사람들 사이에서 봄의 오후를 만끽했다.

벨기에 브뤼셀 그랜드 광장은 지역특산요리인

홍합(Moules) 식당, 전통상점들로 꽉 찬 골목길들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이 광장을 둘러싼 중세 건축물들의 1·2층에 위치한 카페는 밤시간대 유럽 각지의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공간으로 유명하다.

열 테이블에는 네덜란드에서 연수차 왔던 20대 5명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들 역시 첫 방문이었다. 카페는 밤 10시가 넘어가면 자연스레 포장 분위기로 흐르고 몇몇 취객들은 광장에 모여들어 각국의 언어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 하지만 이들의 '취기'는 자정까지만 허락된다.

프랑스 리옹의 거리카페는 구도심에 몰려 있다. 중세 및 근세에 들어선 건축물의 1층 공간에 카페, 식당, 상점 등이 죽 늘어선 있으며, 점포 앞 공간은 점이식 탁자와 파라솔, 의자 등이 차지하고 있다.

전통음식을 파는 노점상도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레지스탕스의 거점이기도 했던 이 좁은 골목길에는 젊은 예술가들의 전시관부터 미술관, 박

물관, 성당, 영화관, 광장, 분수대 등이 집적돼 있다. 거기에 구도심을 휘감고 흐르는 손(Saone)강과 론(Rhone)강 주변의 풍치는 주·야간 관계 없이 그 주변 카페로 사람들을 유인하고 있었다.

광주에도 최근 거리카페가 하나 둘 자리를 잡고 있다. 대부분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라는 점은 다소 아쉽지만 도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유럽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거리로 걷는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매개체가 있다면 그에 맞는 카페들이 주변에 자연스럽게 조성될 것이다.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광주 역시 녹지, 하천, 광장, 문화 및 상업시설, 특징 있는 건축물 등 하드웨어와 함께 여유로운 도시분위기, 상업 행위와 도시 이미지·디자인을 감안한 시스템, 공공공간인 도로 사용에 대한 적절한 대가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할 시점이다.

/글·사진=윤현석기자 chad01@kwangju.co.kr



깨끗하고 건강한 캐나다 청정자연에서 탄생한 - Natural Factors (내추럴팩터스) 드디어 한국에서도 공식 판매 합니다!

청정자연 캐나다에서 태어난 50년 역사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50여 개국으로 수출하여 글로벌 시장에도 우수한 품질확신!

2010년 12월 내추럴팩터스를 국제약품이 공식 판매 합니다!

청정자연에서 건강을 찾아 연구하는 캐나다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내추럴 팩터스
50년 내추럴팩터스 역사를 담았습니다!
 Natural Factors는 캐나다 내추럴팩터스의 등록상표입니다.



캐나다 대표 브랜드 내추럴팩터스는 수십만 평의 자체 허브농장에서 재배한 자연원료를 최첨단 자체연구소에서 우수한 연구기술진이 탄생시킨 고품질 명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원료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철저한 품질관리 시스템은 50여년 동안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철저하고 꼼꼼한 선택!-내추럴팩터스입니다!

Natural Factors 한국총판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공업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48번지
 http://www.kukjepharm.co.kr
 제품문의 : (031) 781.9081 (고객지원팀)